

개혁교회 예배를 위한 지침 (Part 6)

- 헌금(Collection)

By W. L. Bredenhof
trans. by Seok-Jun Yun

W. L. Bredenhof는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랭글리(Langley)에 있는 캐나다 개혁교회의 동사목사입니다.

이 글은 클라리온 Volume 57, No. 3 (February 1, 2008)에 실렸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헌금(offertory) 또는 봉헌(colleition)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예배 중의 한 요소로서 명확한 권리를 갖지 못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르틴 부서는 헌금을 정기적인 기독교 예전의 네 가지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믿었지만(나머지는 설교, 기도, 주의 만찬이다), 칼빈은 다르게 생각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모임에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세 가지가 있다. 그의 말씀의 설교, 공적인 기도, 그리고 성례전의 집행이 그것이다.” 칼빈이 주의 만찬을 매 주간 기념하는 자리에 연보를 하는 것을 포함시켰을 만한데도(그는 이것을 옹호했다), 이는 어느 곳에서도 뚜렷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개혁자들 간의 의견일치의 분명한 결여가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지속되었다. 오늘날에는 많은 장로교회들이(그들 중에 우리의 자매교회인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가 있다) 헌금을 예배의 한 부분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회중들이 예배의 전이나 후에 언제든지 자신들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헌금접시를 뒤에다 둔다. 데든스 교수(Dr. K. Deddens)는 정곡을 찌러, 이를 화란 켈란트(zeeland) 지역에 있는 개혁교회들이 심지어 20세기 초까지 헌금을 예배 중의 한 분리된 요소로서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과 연관시킨다.

이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헌금, 특히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에 대해 취해야 할 명확한 방향을 주고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구약성경에서 이미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역대상 16:29은 이렇게 말씀한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마찬가지 것으로 신명기 16:17도 있다. “너의 중 모든 남자는 일 년 삼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와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도 우리는 고전16:1-2와 같은 본문을 발견한다.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했던 것과 동일한 명령을 주고 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성경적 증거들에 기초하여, 종교개혁 전통하의 모든 교회들은 교회의 생활 안에 있는 특정 성격으로서의 헌금을 주장해 왔다.

예배요소인가 아닌가?

결정에 필요한 질문은, 그것이 정당하게 예배의 요소인가 아닌가하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내가 확실한 케이스라고 믿고 있는 위의 언급한 본문들을 살펴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배 안에 헌금을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구약 본문들은 이 예물들(offerings :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에 관한 언급이다. 이 임재는 오늘날 공중 예배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로서 반영된다. 고린도전서 16:1-2에서 바울은 헌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날에 함께 모일 때 발생하는 어떤 활동으로 말하고 있다. 헌금은 교회 뒤에 두어지는 수동적인 아이템이 아니라 오히려 모임 속에서 활동적인 것이다. 이를 함께 받아들임으로서, 공중예배의 한 분리된 요소로서 헌금을 포함하는 것을 위한 “선하고 필수적인 결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연고로 헌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응답의 한 부분이다(바로 이것이 헌금이 설교 뒤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이다). 헌금은 말씀을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유일한 것으로서, 응답의 요소들 중에 독특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검은 주머니(black bag) 속에 얼마간의 돈을 넣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헌금 자체가 행위로 인한 의사소통임에도 불구하고-역자주), 자주 이 헌금에 특별히 찬송을 덧붙인다. 이유는 우리가 행동으로 또한 표현한 것을 말씀으로 표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제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헌금이 실로 예배행위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현실적인 고려

이 제는 헌금에 관하여 두 가지 현실적인 국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보통 헌금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말들로 소개된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헌금으로 인해 여러분의 감사를 보일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은 그러한 효과를 가진 말들을 통해서이다. 때때로 목사는 헌금을 적절한 성경본문으로 소개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유용할 것이다. 그 본문들은 헌금을 하게 하는 요청이 실로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어떤 말씀이 선택되었든지 간에, 회중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말씀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 요소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형식화된 의식의 문제가 되어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혁교회의 예배의식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인 검은 헌금 주머니에 생각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체로 말하자면 헌금이 드러지는 대다수의 교회들에서는 일종의 접시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검은 주머니를 사용하는 화란 개혁교회의 전통은 독특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화적인 표현 이상의 것이 있다. 이들 검은 주머니는 성경적 원리의 표현인 것이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6:3-4). 방문자들에게는 이것이 낯선 것일지 모르겠지만, 검은 헌금 주머니가 성경적 원리를 시행하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우 리가 헌금에 대해 숙고할 때, 우리의 주의를 필요한 또 다른 성경적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원하신다는 점이다. 마태복음 15:8에서 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29:13을 인용하셨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보 통의 예배에서 헌금시간이 지속되는 것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말해 볼 수 있다. “이 백성이 돈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많은 사람들이 헌금시간을 대화를 위한 시간이나 심지어 주변사람들에게 농담을 하는 시간으로 여기는 듯하다(한국교회들과는 달리 개혁교회 전통들에서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요소보다 사람을 향한 구제의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 중 헌금시간에 성도들은 웅성거리는 편이다-역자주). 이러한 행동들은 **예배 행위로서의 헌금**에 대한 이해와 맞지 않다. 그렇다. 오르간이 연주되고, 목사가 잠잠히 있다. 하지만 그것이 대화를 위한 시간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활동적으로 집중해야만 하는 예배의 시간인 것이다. 하나님의 예배와 통상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서의 반응을 드릴 수 있겠는가? 나는 독자들에게 이 시간을 하나님의 축복을 반사하는 시간, 곧 그들 스스로에게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특별히 전체로서의 회중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반사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싶다.

마 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offering taken for the needy)”과 “정규의 자발적인 헌금(the regular voluntary contribution)”의 차이점에 대해 한 마디만 더 말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심지어 믿음을 고백한 성인 신자들조차 때때로 이 중요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보통 예배시간 중에 행해지는 헌금(collections)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과, 그리스도의 연민과 자선이 집사를 통해 보여질 수 있는 가치로운 다른 곳들을 위한 것이다. 헌금으로 모여진 그 돈은 절대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데에나, 목사의 생활비나, 난방비를 위한 것거나, 연합회의 회비 등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돈은 교회 구성원들의 “정규의 자발적인 헌금”(contribution)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교회들에서는 이 헌금(cotribution)들은 봉투로 모여진다-어떤 지역에서는 봉투가 정규 헌금(collections)으로 대치될 수 있는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봉투를 넣기 위한 특별한 상자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놓여진 것이 무엇이건 간에, 이 봉투들은 집사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Committee of Administration)로 가게 된다. 이들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헌금들(contributions)인 것이다(개혁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자선과 관련된 일들은 ‘집사회’에서 하고, 교회의 건물 유지비나 기타 운영비용과 관련된 일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러한 전통은, 구제하는 일은 성경이 명하는 일이므로 직분자가 감당하는 중요한 일이고, 교회를 운영하는 일은 단순히 필요에 의한 일이기 때문에 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에 기초한 직분관에서 나온 것이다-역자주). “정규의 자발적인 헌금”의 문제에 관하여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자.

다음 글에서는 “결론부의 요소”를 살핌으로서 정규 예배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다. 그 뒤에는 성례전에 관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두 예배를 갖는 실제문제에 대해 써 보도록 할 것이다.

각 주

칼 빈으로부터의 인용은 Hugues Oliphant Old의 학위논문 “The Patristic Roots of Reformed Worship(개혁주의 예배의 교부적 근원)”(Zurich: Theologischer Verlag, 1975), p184. 로부터 인용한 것이다. 이 인용은 K. Deddens 박사의 책 『Where Everything points to Him』 (Neerlandia: Inheritance, 1993), p148 을 참조하였다.